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탁구를 치거나 체력을 측정하고 있는 노인들. 3만1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매일 3천500여명이 찾고 있는 노인타운은 개원 3주만에 광주지역 노인들의 문화·여가·체육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노인타운이 생기면서 광주공원 식당을 찾는 노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유가 있는 노인은 타운으로, 그렇지 못한 노인은 광주공원에 남는, 일종의 '분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희기자 jhlee@kwangju.co.kr

‘노인타운 개원 3주’ 당구·탁구에 컴퓨터하고 노래 부르고

광주 노인문화가 바뀐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하 노인타운)이 광주 노인들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

매일 오전 일찍 노인타운으로 가는 시내버스는 노인들이 독차지하고, 셔틀버스는 절반도 가기 전에 꽉 차버린다. 광주공원에 나와 장기관을 놓고 씨름하던 노인들은 이제 노인타운에서 당구나 탁구게임을 즐기고, 목욕을 한 뒤 점심을 해결하며, 컴퓨터실이나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러한 시설을 모두 즐기는 데 드는 비용은 수 천원에 불과하며,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 관리·여가·체육·문화·식사를 모두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광주 곳곳의 노인들을 노인타운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노인타운 개소 3주만에 노인들이 동네 친구들이나 모임 회원들과 함께 타운을 찾는 것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광주공원이나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는 노인들의 수는 점차 줄고 있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복지관, 체육관, 문화관, 후생관 등 노인

몇천원으로 건강·여가·식사 한꺼번에 회원 3만1천여명...하루 3천5백명 찾아

타운 내 시설을 찾는 노인은 하루 평균 3천500명 가량으로, 이 중 1천200여 명이 타운 내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1만7천853명의 3%에 해당되며, 자신의 의지로 타운을 찾을 수 있는 광주 시내 건강한 노인의 10% 이상이 매일 찾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노인타운 회원은 3만1천여 명에 달한다.

김양자(74·북구 두암동)씨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갔는데, 모든 시설이 최고급이며, 노인들이 대접받는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꼭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노인타운이 생기면서 광주공원

식당을 찾는 노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유가 있는 노인은 타운으로, 그렇지 못한 노인은 광주공원에 남는, 일종의 ‘분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준석(73·남구 방림동)씨는 “버스요금에 점심이나 목욕탕 값까지 생각하면 하루 5천 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 데 그 돈이 부담되는 노인들은 아무래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관계자들의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 충북도와 서울시, 가톨릭대학 관계자 등이 최근 타운의 운영·관리 실태와 시설 배경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돌아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들 지자체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광주가 하나의 모델이 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양자(74·북구 두암동)씨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갔는데, 모든 시설이 최고급이며, 노인들이 대접받는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꼭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노인타운이 생기면서 광주공원 식당을 찾는 노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유가 있는 노인은 타운으로, 그렇지 못한 노인은 광주공원에 남는, 일종의 ‘분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준석(73·남구 방림동)씨는 “버스요금에 점심이나 목욕탕 값까지 생각하면 하루 5천 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 데 그 돈이 부담되는 노인들은 아무래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관계자들의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 충북도와 서울시, 가톨릭대학 관계자 등이 최근 타운의 운영·관리 실태와 시설 배경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돌아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들 지자체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광주가 하나의 모델이 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보조금 11억 부정 수령 어촌계장 등 29명 적발

여수해양경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촌계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어촌계 대표와 납품업자 등 수십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은 29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어수 시 모 어촌계장 김모(49)씨 등 전남 동부지역 어촌계 대표 22명과 자체 및 종도 납품업체 대표 7명 등 29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전북양식장 조성 및 종패 살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꾸며 두 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또 고흥과 보성 등 전남 동부지역 일부 어촌계 대표들은 갈매 및 종도 납품업체 등과 짜고 관할 기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9억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광주시, 8,300만원 배상하라”

승진소송 5년 법정공방

광주지법 ‘재량권 남용’

승진임용 대상 공무원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뒤 5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 온 광주시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용규)는 29일 정운채(60)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시는 정씨에게 8천3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승진하지 못해 2004년부터 안개 된 급여 등 재산상 손해를 3천300만원으로, 공무원으로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위자료료 5천

만원으로 책정했다.

광주시는 2004년 3월 국가직 서기관(4급)이던 정씨를 지방부이사관(3급) 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한 뒤 이를 공표하고 정씨를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시는 이후 비엔날레 이사장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4개월 만에 정씨를 직위해제 한데 이어 예고된 승진임용 마저 철회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이 길어져 정년이 임박하자 정년을 호적에 따라 1년 뒤로 미루는 ‘공무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가 제기한 두 소송은 모두 광주고법에서 승소했으며, 광주시의 재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前 구의원이 이웃집 모녀 성추행

광주 동부경찰에 입건

40대 주부와 그의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광주지역 모자치구 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동부경찰은 심야에 학생들만 있는 집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무릎에 앉힌 뒤 가슴 등을 만진 혐의(성추행)로 S(67)씨를 입건했다.

S씨는 지난달 1일 자정께 과거 2차 레 다녔던 적이 있는 A(여·48)씨의 집에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딸 B(12)양을 무릎에 앉힌 뒤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양이 잠에서 깨자 ‘S씨는 1만 원을 주며 비밀로 하자고 했

다’고 B양의 가족은 주장했다. B양의 부모는 당시 경북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가한 또 다른 딸(17)의 경기를 보러 집을 비운 상태였다.

S씨는 또 딸을 낚는다며 B양의 어머니 A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딸을 낚는다면서 S씨의 손이 점차 아래로 내려간 뒤, 갑자기 ‘흥분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에서 S씨는 “1만 원은 A씨의 이웃인 M씨가 전담해달라는 돈이었으며, M씨가 아이들밖에 집에 없다고 해 문을 잘 잠그고 자고 있는지 확인자 방문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철호기자 khh@

나원침 (7842) 김장동



문중 돈 10억 ‘꿀꺽’

광주서부경찰은 29일 문중 돈 10억 원을 가로챈 장모(42)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2007년 2월 정모(42·구속)씨와 공모해 정씨의 문중이 들여놓은 정기에탁구 10억원을 빼돌린 뒤 이를 현금화해 주고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자전거 재미로 훔치다 전과자 낙인

○최근 자전거 열풍이 불면서 재미 삼아 고가의 자전거를 훔치다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유모(22)씨 등은 지난 22일 새벽 1시 40분에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기숙사 앞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진 박모(23)씨의 자전거(시가 50만원 상당) 1대를 훔쳐 달아났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오전 8시 55분께에는 김모(14)군 등 10대 6명이 북구 운암동 모 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 1대와 자전거 5대를 훔치다 적발.

○북부경찰 관계자는 “재미 삼아 자전거를 훔치다 특수절도라는 무거운 죄명의 전과가 남게 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생계형 절도 잇따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취업난이 심화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절도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29일 옛 국군 기무부대 이전 부지에서 구리전선을 훔친

고물수집상 안모(44)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안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국군 기무부대 이전 부지 창고에서 구리전선 10kg을

고물 수집상 구리선 절도

60대女 완두콩 8kg 훔쳐

30대 주부는 아동복 ‘슬쩍’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최근 고물 수집량이 줄면서 생활비 마련이 어렵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 1시께에는 이모(여·

74)씨가 광주시 서구 쌍촌동 옛 광주지방국세청 인근 김모(여·68)씨의 콩밭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완두콩 8kg을 훔치다 적발돼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달 14일 오후 5시께에는 북구 각화동 S마트 1층 의류매장에서 도난 방지 시스템을 때어낸 뒤 20만 원 상당의 아동복 등을 훔친 최모(여·35)씨가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various notices, classified ads, and a prominent 'K2 등산복·등산화' (K2 Hiking Gear) advertisement. The text is dense and organized into columns.